

新年辭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새해 일출은 적토마의 기운을 담은 듯 구름 속에서도 어느 해보다 힘찬 기상으로 솟았다.

맡은 진취와 돌파의 상징이다. 맡 자체로도 속도와 힘을 대변하는데 병오년은 붉은 불의 기운을 더했으니 그 기운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올해 말의 기상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광주·전남에 에너지가 넘쳐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계엄 정산으로 국정을 바로 세우는 회복에 전념한다면 올해는 각 분야에서 실용정부의 면모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5대 대전환 구상을 밝혔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특정 소수가 득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대도약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고 했다.

5대 대전환의 첫 번째를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제시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말로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5국 3특 체제'는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수도권 1국 체제에 맞서 전국을 광주·전남 등 5대 초광역권과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5국 3특 체제'는 올해 우리 지역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1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승인해 출범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란 화두를 던져 연초부터 지역 정가를 달구고 있다.

5국 3특 체제를 위해서는 광주·전남이 초광역권을 형성해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등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공동 현안과 교통, 경제 등 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가까스로 법적 토대를 마련한 상황에 행정통합이란 급발진 카드가 나왔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광주·전남이 행정통

에서 메기 되겠다"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공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인물 공천에 달려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올해 본격화 될 광공 기관 지방 이전 정책인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광주·전남은 시즌 1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빛가람 혁신도시라는 공동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시즌 2에서도 광주·전남이 경쟁보다는 상생 정신으로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

경제는 '국민의 삶'이란 이재명 정부 대도약 기준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대전환 이란 신산업 성장 엔진을 가능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내야 한다. 뉴노멀이 된 고물가와 원화 약세를 잡는 것은 서민경제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AI 3대 강국'과 '에너지 대전환'을 미래 신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정했는데 광주·전남의 신산업과 겹치다보니 정부의 지원 속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국가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한 광주시가 지난해 AI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AX 실증밸리'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반도체 첨단 패키징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전남은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다. 지난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후보지로 결정됐고 에너지 분산 특구로 지정돼 전기가 만들어진 곳에서 소비까지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 구현의 최일선에 섰다.

의 무안 이전 협의는 올해 이행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무안 주민들의 과반 동의라는 첫 관문부터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정부 주도로 돌려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군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여의도 2.8배 크기의 광주 종전부지는 광주의 도시 지형을 바꿀 프로젝트다. 광주시는 광주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성공 여부는 광주의 3대 신산업인 AI, 미래차,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와 직결돼 있다고 할 것이다.

광주에선 '굴절 도시'의 핵심 콘텐츠인 더현대 광주와 광주신세계 등 복합쇼핑몰 3종 세트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유통을 드러내게 된다. 온라인 소비 고�화로 골목상권 침체가 일상인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복합쇼핑몰 개점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더 촘촘하게 마련하는 해가 돼야 한다.

전남 도민들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의 전제 조건인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도 연초에 연착륙을 이끌어 내야 한다. 막판 순천대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인 것은 통합 추진 주체들의 소통 부족인 만큼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불 같은 적토마의 기운은 잘 사용하면 육일승천의 기회지만 잘못 사용하면 과도한 육심으로 주락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서 실생활에 파고드는 올해 개인들은 물론 기업과 차지 단체들도 속도 경쟁으로 내달릴 가능성이 크다. 진취와 내달림의 유행이 강할수록 멈춤의 지혜가 필요하다.

멈춘다는 것은 뒤쳐진다는 것이 아니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방향을 점검한다는 의미다. 속도 경쟁 속에 차지 방향을 잊고 오히려 뒤쳐지는 일 이 없도록 속도를 조율하면서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자세로 병오년을 시작하다.

‘적토마’의 기상으로 신산업 육성 도약 이끌자

합에서 가장 앞선 충청권을 단숨에 제치고 '5국 3특 체제'에서 주도권을 끌 수도 있겠지만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출마 예정자들이 내민 카드와 선거용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만에 치러지는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고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덫발인 점을 감안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 동력은 물론 지방정부의 위상을 가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들은 행정통합 카드를 표심잡기용이 아니라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지역 생존 차원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텃밭

와도 직결된 문제라 상시 비상체제를 갖추고 대응해야 한다.

고공 행진 중인 서울 집값과 미분양이 쌓이는 지방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양극화가 가장 어려운 과제다.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이기에 지역 입장에선 침체된 지방 부동산을 살려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광주·전남 입장에선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이 본격적으로 퀘도에 오르는 해다. 지난해 광주는 인공지능(AI), 미래차, 반도체를 3대 신산업으로 정했고 전남은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에너지수도'라는 입지를 다졌다. 고무적인 것은 광주·전남의 신산업이 정부의 전략산업과 궤를 같이

여기에 나주에 차세대 청정 에너지원인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해 명실상부한 '에너지수도 전남'을 실현하는 첫 해가 된다.

병오년은 우리 지역의 산업지도를 미래 신산업으로 바꿀 원년임이 분명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경쟁보다는 상생으로 시너지를 내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지난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놓고 약간의 소모전을 벌인 것을 교훈 삼아 원인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AI와 전력은 서로 돋지 않으면 공존할 수 없다. AI가 가능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재생에너지 메카인 전남에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주는 소프트웨어인 인력 양성 등 역할 분담으로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지난해 극적으로 이끌어 낸 광주·민간 공항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온교회 담임목사

새해는 세월을 아끼는 신앙으로

인간이 중력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법칙을 얼마나 치열하게 거스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 장면은 단순히 신체적인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경외감마저 자아냈다. 이 도약의 원리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신앙의 결단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물질만능주이라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중력권 안에서 살아간다. 세상의 이치는 명확하다. 물질(돈)은 떠나있는 삶이란 상상하기 힘들다. 돈은 우리 삶의 기반이자 안전망이며, 동시에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무거운 중력이다. 둘이켜보면 작년 한 해는 이 중력에 순응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 버렸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혹은 눈앞의 기회를 놓지 않기 위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세상에 담보로 내어주며 분주한 속에 자신을 방치해왔던 것이 솔직한 고백일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세상의 경제 논리를 거스르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린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에베소서 5:15-16). 여기서 아끼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인 '예사고과조(exagorazo)'는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들이다'라는 뜻이다. 즉, 신앙이란 약한 세력과 물질의 중력에 빠져간 채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다시 사오는 적극적인 선택이다.

주일의 소득이나 세상적 성공의 기회를 뒤로하고 하

나님 앞에 머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비상을 위해 중력의 무게를 이겨내는 거룩한 도약의 비용이다.

놀라운 역설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이는 결단과 행함 속에서 일어난다. 물질의 중력이 미치지 않는 영적인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를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1)는 초대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사기 위해 세상을 항해 물질적인 비용을 지불했더니 정작 그 시간 속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생수와 평안을 값 없이 선물 받게 되는 것이다. 내가 지불한 것은 유한한 소득이었으나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신앙의 만족이다.

결국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위치는 그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 증명된다.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기꺼이 물질적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을 아끼워하기보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영적 위치다. 억지로 하는 회생은 고통이지만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자의 지불은 축제가 된다. 작년처럼 시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여 시간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 보자. 운동선수가 한계를 돌파하며 점프 하던 그 폭발적인 힘으로 올해는 나를 당기는 비신앙적인 중력을 이긴 자의 자유를 누려보자. 아울러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목표들을 이루는 기쁨이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한다.

無等鼓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10년은 옛말이 된 것 같다. 1년 1년이 다르다.

그라운드의 시간도 빨라졌다. 스포츠와 과학이 만나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도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늘었고 그만큼 예전처럼 '왕좌'를 굳건히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요즘이다.

배드민턴의 안세영처럼 놀라운 질주로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선수도 있지만 바로 최강자는 떠오르지 않는 종목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여자 골프이다.

지난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는 물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는 압도적인 강자 없이 대회마다 치열한 우승 경쟁을 연출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 다시 4년의 잔치가 찾아왔다. 4년을 기다린 선수도 있을 것

이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4년을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진 선수도 있을 것이다. 4년이라는 시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스포츠를 어떤 모습으로 바꿨을까.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는다.

4년의 주기가 잠시 흐트러진 적이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아시안게임의 경우 2022년이 아닌 2023년에 개최되기도 했다. WBC도 2021년 대회를 쉬고, 2023년에 5번째 우승자를 가리기도 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 다시 4년의 잔치가 찾아왔다. 4년을 기다린 선수도 있을 것 이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4년을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진 선수도 있을 것이다. 4년이라는 시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스포츠를 어떤 모습으로 바꿨을까.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는다.

/김여울 디지털·체육부장 wool@

기고

배려와 존경과 감사가 안겨 준 행복



이동범
수필가·교육칼럼니스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금년 새해에는 배려와 존경과 감사로 온 국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행복 추구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가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고 남을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최근 들어 고령화로 주위에 어르신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는 손자세대는 어르신을 어떻게 배려하고 존경해야 하는지 개념도 없고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비평가인 R세넷과 J코브가 출간한 '계급 세계 속숨겨진 희생자'에 의하면 계급과 인종에 따라 불평등을 공고히 구축해가는 현대사회에선 불평등 사다리의 아래쪽에 자리할수록 경제적 빈곤과 물질적 궁핍이란 고통에 대해 의당 누려야 할 '8·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심리적 상처와 기본적 '존경' 조차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단지 기난이란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야말로 물질적 궁핍으로 인한 고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지목하면서 세넷과 코브는 '숨겨진 희생자'의 존재를 부각시켰던 것이다.

나아가 눈에 보이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뜻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배려와 존경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중지를 모아야 함을 역설한다.

세넷과 코브의 혜안은 너나없이 기난했던 때에는 오히려 희생도 감수하고 양보의 미덕으로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었건만 오히려 선진국이 되고 보니 천박한 물질 주위가 난무하고 인하무인의 이기주의가 팽배해가는 우리 사회를 향해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안겨 준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

경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체화되어야 한다. 예전 세대는 확대 가족 안에서, 대여섯 명씩 되는 형제자매들 틈에서 전인척과 교류하며 배려와 존경의 가치를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구성원의 인격을 기위했다.

이전 친숙한 '우리'끼리 보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나 밥상마리 교육의 아름다운 전통과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던 기억을 되살려 찾고자하는 타인이야말로 진정어린 배려의 대상임을 되새길 일이다. 이러한 배려와 함께 고맙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웃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어 불만이나 싸움이 없게 되고 서로 용서하는 훈훈한 사회가 될 것이다.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감사하게 되면 인생에 무한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감사는 으뜸이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함께 더불어 사는 이들을 향한 배려와 존경과 감사가 일상화된 사회야말로 진정 우리가 원하는 성숙하고도 품격 있는 공동체이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2026년 병오년의 새 아침이 밝았다. 가족들과 함께 무등산 자락에 올라 광주 시내를 내려다보며 역동적인 말의 해를 시작하는 희망찬 기운을 들풀고 받았다. 산을 내려와 찾은 양동시장은 새해 음식을 준비하려는 시민들로 빨디털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다.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간 뛰어낸 시장